

<p>1, 2 만민들아 귀를 기울여라. 만백성이 이 말을 들어라. ○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,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모두 다 들어라.</p> <p>3 내 마음의 생각은 슬기를 지녔고 ○ 내 입의 말에는 지혜가 담겼다.</p> <p>4 내가 속담에 귀를 기울이고 ○ 수금을 뜯으며 수수께끼를 풀리라.</p> <p>5 악을 꾸미는 자들이 나를 뒤쫓고 노려보아도 ○ 이 곤경에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.</p> <p>6 한갓 돈 많음을 자랑하며 ○ 재물을 믿는 그들이거늘,</p> <p>7 하느님께 돈을 바친다고 ○ 죽을 목숨을 살려 주시랴?</p> <p>8 제 목숨 값은 엄청난 것, ○ 그 값을 치르기는 감히 생각도 못 할 일이다.</p> <p>9 저승길을 가지 않고 ○ 영원히 살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마라.</p> <p>10 지혜로운 사람도 죽고: 어리석은 자, 우둔한 자 모두 죽는 법이다. ○ 그 재산은 결국 남에게 두고 가는 것!</p> <p>11 그들이 땅에다가 제 이름 새겼더라도 ○ 그들의 영원한 집, 언제나 머물 곳은 무덤뿐이다.</p> <p>12 사람은 제 아무리 영화를 누리도 ○ 잠깐 살다 죽고 마는 짐승과 같을 뿐이다.</p>	<p>13 제 잘난 멋에 사는 자가 그 꼴이 되고 ○ 제 말만 내 세우는 자도 그렇게 되리라.</p> <p>14 양이나 소가 끌려 가 죽고 말듯이 ○ 죽음에 몰려 저승으로 곧장 가리라.</p> <p>¶ 죽음에 그들이 다스릴지니 ○ 마침내 그 모습 사라지고 영원히 저승을 벗어나지 못하리라.</p> <p>15 그러나 하느님은 나의 목숨을 구하여 ○ 죽음의 구렁에서 건져 주시리라.</p> <p>16 누가 부자 되었다 해도, 그 가문이 명성 떨친다 해도 ○ 너는 시샘하지 마라.</p> <p>17 죽을 때 재산을 가져가지 못하고, ○ 명예도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.</p> <p>18 세상에서 잘 산다고 스스로 축복하고 ○ 복스럽다고 사람들이 칭송한들</p> <p>19 그는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할 곳, ○ 조상들이 모인 그 곳으로 가고 말리라.</p> <p>20 사람은 제 아무리 영화를 누리도 ○ 잠깐 살다 죽고 마는 짐승과 같을 뿐이다.</p> <p>◎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○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, 아멘.</p>
--	--

복음서: 요한복음 2:23-3:15

<p>예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,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.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시므로,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. 그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. 그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.</p> <p>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.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.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. "랍비님, 우리는,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.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,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,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."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. "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.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,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."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. "사람이 늙었는데,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?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?" 예수께서 대답하셨다. "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.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,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.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,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.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,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.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. 너는 그 소리는 들지만,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. 성령으로 태어</p>	<p>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."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. "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?" 예수께서 대답하셨다. "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,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?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. 우리는,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,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,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.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,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?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.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, 인자도 들려야 한다.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.</p> <p>○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. ●하느님께 감사합니다.</p>
--	--